

# 대학에 바란다

도재원  
거창고등학교 교장



**일**찍이 John Dewey는 그의 저서 Democracy and Education에서 교육을 일컬어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여 개인의 능력을 점진적으로 신장 발달시키는 작용 (freeing of individual capacity in a progressive growth directed to social aims)’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교육이 모든 사회현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그리하여 사회현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장기적 대안으로서 늘 교육개혁의 문제가 등장한다. 심지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문제에서도 의식개혁이 장기적 과제로 떠오르고, 의식개혁의 근원적 해결책으로 교육개혁을 꼽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교육개혁에 대한 당위성은 이미 입증된 거나 다름이 없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고 단언한다 해도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교육관련 기관 가운데 대학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일류대학 입학과 동일시하는 범국민적 공감대가 위협수위에 도달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대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오로지 대학입시라는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논술을 중요시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독서와 논술지도를 하는 유행이 전염병처럼 번진다. 평준화제도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진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중학생들에게 해당 고등학교의 일류대학 합격생 수가 고등학교 선택의 잣대가 되

고 있다. 획일적인 선발방법으로는 이러한 병폐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본고사 대신에 내신성적을, 학력고사 대신에 수학능력시험을, 지필 고사 대신에 논술과 면접을 채택하면 문제점이 해결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선발 기준이 단조로우면 그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해야 하고 경쟁은 필연적으로 더 치열한 경쟁을 낳기 때문에 갖은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선발 기준과 수시모집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되는 치열한 경쟁을 막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대학은 나름의 특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특성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획득한 일정한 점수를 가지고 진학할 수 있는 대학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다고 생각되는 대학으로 가게 된다. 더군다나 언론과 사설 입시 관련기관의 도움으로 대학의 서열화는 고착되어 버린 느낌마저 든다. 대학의 서열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바뀌질 않았다. 최근 포항공대와 한동대가 특성화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바람직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셋째, 앞서 언급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이 스스로 서야 한다. 스스로 선다는 것은 교육부의 간섭은 말할 것도 없고, 관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그 동안 대학은 스스로 서지 못했다. 그래서 교육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도 얻지 못했다. 술한 부정입학 사건, 편법 학사운영, 교수 채용 비리, 사학재단의 횡포 등으로 교육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것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도 사실상 무리였다. 대학사회는 최고 지성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어떤 사회보다도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이기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도재원/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수학교육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거창고등학교 교사·교감, 셋별중학교 교장, 교육개혁위원, 시도교육청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저서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공저)를 발표했다.